



신라의 中岳과 팔공산 동봉유적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Remains in the East Peak of Palgong Mountain as Shilla's Jungak(中岳)

저자 (Authors)	정동락 Jung, Dong-la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17 , 2014.8, 73-115 (43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17 , 2014.8, 73-115 (4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78691
APA Style	정동락 (2014). 신라의 中岳과 팔공산 동봉유적. 한국고대사탐구, 17, 73-11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中岳과 팔공산 동봉유적

정 동 략*

- I. 머리말
- II. 신라의 五岳, 그리고 中岳
- III. 중악 제사지로서의 ‘팔공산 동봉 유적’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의 三山·五岳 중에서 中岳이었던 公山의 제사지를 살펴본 사례 연구이다. 팔공산의 동봉(1,167m) 정상부에는 기와편을 비롯해 토기와 자기편 등 다량의 유물이 산포해 있다. 이 유물은 대체로 통일신라에서 조선전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와는 종류가 다양하고 시기 폭도 넓어, 건물이 장기간에 걸쳐 수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기와 자기는 酒瓶, 소형 잔과 대접 종류가 주를 이룬다.

‘팔공산 동봉 유적’은 山頂의 바위 위에 입지한 巖上유적이다. 동봉 정상부의 기와 건물은 祭儀를 위한 神祠, 주병과 잔 등은 祭器였던 듯이다. 따라서 동봉 유적은 신라의 中岳神祠터로 추정된다. 신라의 중악 제사지는 팔공산 동봉 정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발굴조사가 아니라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유물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여, 동봉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사지를 추정된 것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헌자료가 부족한 신라의 산악제사에 대한 논의의 진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新羅, 名山大川, 五岳, 中岳, 公山, 祭祀址, 八公山 東峯 遺蹟

* 대가야박물관

I. 머리말

신라인들은 전통적으로 名山大川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 산천제사의 연원은 멀리 선사시대의 수렵문화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한시대에도 한반도의 각지에 분포했던 小國의 지배층에 의해 지속되었다. 각 지역의 수장층은 산악에 대한 제사를 매개로 지역민을 결속하고, 지배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四國時代가 되면서 삼한 소국의 지배층은 통합되었지만, 산천신에 대한 제사는 흡수·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삼국통일 이후 각지의 산천제사는 국가제사로 체계화되었고, 가장 활발하였다. 산천제사 중에서도 산악제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숭앙심도 깊었다.¹⁾ 제사의 대상은 지역을 수호하는 山岳神이었다. 산악신은 檀君王儉이 阿斯達의 산신이 되었고, 脫解가 東岳神(東岳大王)인 점에서 祖上神(山神, 天神)이라 할 수 있겠다.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三山五岳 이하 名山大川이 大·中·小祀로 편제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산천제사를 통일신라의 지배질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한 결과물이었다. 산천제사는 고대사회의 신앙은 물론 지역 정치체의 존재 양상, 국가제사 체계, 지역과 그 세력에 대한 편제, 집권체제의 성격, 무불습합 등 여러 양상을 알려주는 주제이다. 이점에 주목하여 그간 많은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특히, 오악을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 화염사상과 연결시킨 연구는²⁾ 산천제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

1) 복천박물관, 『선사·고대의 제사·풍요와 안녕의 기원-』, 2006, 9쪽 및 58~63쪽 ; 동진숙, 「고대 제사유구와 유물」 『선사·고대의 제사·풍요와 안녕의 기원-』, 복천박물관, 2006, 156쪽.

2) 이기백, 「신라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33, 1972 : 『신라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74. 한편,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김상현, 「신라중대 전제왕권과 화염증」 『동방학지』44, 1984 : 『신라화염사상사 연구』, 민족사, 1991).

시켰다. 이에 1980·90년대에 삼산과 오악의 기초적인 검토, 『삼국사기』제사지의 성립, 신라의 제전과 제의, 산악숭배와 산신신앙, 전통적인 산천신앙과 불교의 습합 등이 밝혀졌다.³⁾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의 제전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지배체제의 정비와 왕권과의 관계, 불교사원과의 관련성, 산천제사의 변천과정을 규명하는 등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⁴⁾ 오악 중에서는 지리산(남악), 태백산(북악)이나 계룡산(서악)에 대해 정리되었고,⁵⁾ 제사지에 小祀로 수록된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이 발굴조사 되

-
- 3) 홍순창, 「신라 삼산 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4, 1983 ; 김동욱, 「신라의 제전」 『신라문화』4, 1983 ; 신종원, 「삼국사기 제사지 연구」 『한국학보』30, 1984 ; 서영대, 「삼국사기와 원시종교」 『역사학보』105, 1985 ; 문경현, 「신라의 산악 숭배와 산신」 『신라문화계 학술논문집』12, 1991 ; 신종원, 「신라 사건의 성립과 의의」 『신라초기 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 최광식, 「신라와 당의 대사·중사·소사 비교 연구」 『한국사연구』95, 1996 ; 박호원,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2, 1995 ; 김두진,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 4) 손정희, 「산신신앙연구」 『한국민족문화』16, 2000 ; 김영수, 「삼산오악과 명산대천 숭배의 연원 연구」 『인문과학』31, 2001 ; 김철웅, 「고려시대의 산천제」 『한국중세사연구』11, 2001 ; 신익철, 「대사·중사·소사의 실증적 연구」 『인문과학』31, 2001 ; 윤선태, 「신라 중대의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신라문화계 학술발표회논문집』23, 2002 ;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20, 2007 ; 허홍식, 「『고려사』지리지에 실린 명소와 산천단묘와의 관계」 『한국사연구』117, 2002 ; 허홍식, 「조선전기 경상도의 산천단묘와 그 특징」 『민족문화논총』28, 2003 ; 『한국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집문당, 2006 ; 김재경, 「신라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민족사, 2007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 채미하,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23, 2011 ; 구효선, 「신라의 경계와 제사」 『선사와 고대』28, 2008 ; 김아네스, 「고려시대 명산대천과 제장」 『역사학연구』50, 2013 ; 최진구, 「신라 오악과 불교의 산신신앙 연구」 『신라문화』42, 2013 ; 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신라문화』43, 2014 ; 임평섭, 「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 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 『신라문화』43, 2014.
- 5) 김영수, 「지리산 성모사에 就하여」 『진단학보』11, 1939 ; 김갑동, 「고려시대의

기도 했다.⁶⁾

이처럼 신라의 산천제사, 특히 오악에 대해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다. 하지만, 산천제사가 어떻게 거행되었고, 각각의 구체적인 祭祀址는 어디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펴볼 대목이 적지 않다. 제사유적의 성격상 문헌자료에서 정확한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고, 현저하고 특별한 시설이 남지 않아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연구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

이 글은 신라 오악 중에서 국토의 중앙으로 인식된 中岳(父岳), 즉 (八) 公山의 제사지가 어디일까라는 소박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사실, 그간 팔공산과 중악 제사지에 대한 검토가 없지 않았으나,⁷⁾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신라 오악과 중악 제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팔공산 동봉 정상에서 확인한 ‘동봉 유적’의 현황과 유물을 소개하고, 신라의 중악 제사지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측해 보았다.

이 글은 유물을 통해 신라 중악의 제사지를 ‘팔공산 동봉 유적’으로 추정해 본 사례연구이다.⁸⁾ 직접적인 발굴조사가 아니라 지표채집 유물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으므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동봉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보다 명확해 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신라의

남원과 지리산 성모천왕, 『역사민속학』16, 2003 ; 송화섭, 「지리산의 노고단과 성모천왕」, 『도교문화연구』27, 2007 ; 김아네스, 「고려시대 산신 숭배와 지리산」, 『지리산과 명산문화』, 지리산권문화연구단, 2010 ; 김아네스, 「조선시대 산신 숭배와 지리산의 신사」, 『역사학연구』39, 2010 ; 김아네스, 「지리산 산신제의 역사와 지리산 남악제」, 『남도문화연구』20, 2011 ; 공주시·공주민속극박물관, 『계룡산 산신제 복원 조사보고서』, 1997 ; 김도현,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 강원도민일보사, 2009.

6) 목포대학교박물관 영암군,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1996.

7) 문경현, 『팔공산』, 대구직할시·경상북도, 1987 ; 김춘실,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 좌상의 양식 특징과 조성 배경」, 『팔공산 선본사』, 2013.

8) ‘팔공산 동봉 유적’은 신중환 관장(대가야박물관)이 처음 확인하였으며, 이 글의 작성에 조언해 주었다. 감사드린다.

삼산과 오악을 비롯한 명산대천 제사지에 대한 사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회가 된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사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⁹⁾

II. 신라의 五岳, 그리고 中岳

1. 신라의 五岳과 祭祀

신라의 국가 祀典인 명산대천 제사는 『삼국사기』제사지에 그 대략이 수록되어 있다. 산천제사의 대상은 ‘三山과 五岳이하 名山大川’이고, 중요도에 따라 ‘대·중·소’의 세 등급을 매겨 祭場과 관할지명을 註記로 표기했다. 신라의 산천제사는 唐의 사전을 참고하여, 통일신라 영역 내의 명산대천에 맞추어 변용한 것이었다. 중국과 달리 명산대천만을 대상으로 대·중·소사로 편제한 것이 특징이다.¹⁰⁾

먼저, 大祀인 三山은 奈歷(習比部) 등 3개소이다. 中祀로는 五岳과 四鎮, 四海, 四瀆과 기타 俗離岳과 淸海鎮 등 6개소¹¹⁾로 총 23개소이다. 小祀는 霜岳과 雪岳에서 加良岳과 西述 등 24개소이다. 신라의 산천제사는 대·중·소 모두 50개소의 산천, 海瀆, 城鎮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산악이 35개, 川海가 7개, 城이 3개, 鎮이 1개, 기타가 4개소였다.¹²⁾ 전체의

9) 최근 수시로 현지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토함산 정상(동악)’, ‘지리산 천왕봉(남악)’, ‘가야산 우두봉(加良岳)’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10) 최광식, 앞의 논문, 1996 ; 채미하, 앞의 책, 2008.

11) 중사에 표제 없이 들어간 6개소는 소사에 들어갈 것이 잘못 끼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기백, 앞의 책, 1974, 195쪽, 주1).

12) 채미하, 앞의 책, 2008, 311~312쪽.

70%가 산악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대·중·소사의 입지도 각기 특징이 나타난다. 삼산은 신라 王都인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 중사인 오악 등은 신라의 동·서·남·북 사방을 원칙으로 하여 거기에 中이 끼기도 했다. 소사는 신라 영토의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제사지는 제장의 관할지 군현의 성립시기와 연동된다. 신라에서 주·군·현이 갖추어진 685년(신문왕 5)에서 735년(성덕왕 34) 이전에 편제되었을 듯하다. 다만, 속리악 이하 6곳은 청해진이 828년(흥덕왕 3)에 설치되므로¹³⁾ 그 이후에 추가되었을 것이다.¹⁴⁾

삼산·오악 등의 성립 시기는 일률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었다. 삼산은 성읍국가인 사로국과 관련된 舊신라의 것으로, 통일 이후에도 최고의 신성 산악으로 중시되었다. 오악과 사진 등은 통일신라의 상징적인 존재이므로, 통일 직후 영토의 확대에 맞추어 문무왕 말년이나 신문왕대에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¹⁵⁾ 소사 역시 이전 시기에 거행되던 것을 계승해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신라의 산악제사 중 가장 중시된 것은 국가제례의 최고위에 배당된 대사의 대상인 삼산이었음이 분명하다. 삼산은 舊신라의 왕경이 위치한 경주분지 주변에 있어,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천제사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악 등 국토사방의 산천을 대상으로 한 중사가 편성되었을 것이다. 특히, 오악은 사진, 사해 등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¹⁶⁾

A) 三山·五岳 이하의 名山大川을 대·중·소사로 나누어 삼았다. 大祀는 ... 이다. 中祀로 五岳은 동쪽의 吐含山(大城郡)과 남쪽의 地理

13) 『삼국사기』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3년 하4월.

14) 채미하, 앞의 책, 2008, 308~310쪽.

15) 이기백, 앞의 책, 1974, 205~207쪽.

16) 김두진, 앞의 책, 1999, 354쪽.

山(靑州), 서쪽의 鷄龍山(熊川州), 북쪽의 太白山(奈已郡), 중앙의 父岳(一云 公山, 押督郡)이다. 四鎮…四海…四瀆…[기타] 俗離岳… 淸海鎮이다.(『삼국사기』권32, 제사지)

오악은 동쪽의 吐含山과 남의 地理山, 서의 鷄龍山, 북의 太白山, 중앙의 父岳(一云 公山)이었다. 오악의 순서가 동·남·서·북과 중앙으로 기재되었는데, 중요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사진, 사해 등도 같은 순서이기 때문이다. 사진, 사해 등은 사방에 그친데 비해 오악은 중앙을 배당한 점도 흥미롭다.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오악을 여타의 中祀보다 중시했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악은 각각 大城郡, 靑州, 熊川州, 奈已郡, 押督郡 등에 위치한 것으로 註記되었다. 지리산과 계룡산은 州, 토함산 등 3개소는 郡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분명치 않으나, 제장의 소재처만을 나타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예컨대, 推心은 大加耶郡, 加良岳(가야산)은 靑州로 기록하였다. 이 둘은 모두 대가야군에 위치했는데, 각기 관할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주기는 제장의 소재처를 의미함과 동시에, 해당 제사를 관장했던 군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¹⁷⁾

오악은 원래 신라 중심부인 경주분지를 둘러싸고 성립되었다가, 통일 이후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토의 사방과 중앙의 산악으로 변화한 듯하다.¹⁸⁾ 그렇지만 오악과 해당 지역은 통일 이전부터 국방·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오악은 신라가 국가 성장과정에서 새롭게 편입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흡수·정복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¹⁹⁾이라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17) 채미하, 앞의 책, 2008, 283쪽 및 318~321쪽.

18) 이기백, 앞의 책, 1974, 207쪽 ; 채미하, 앞의 책, 2008, 325쪽 ; 김병곤, 앞의 논문, 2014, 391쪽.

19) 이기백, 앞의 책, 1974, 205쪽.

東岳인 토함산은 昔脫解가 東岳山神으로 추앙되어 석씨세력의 상징적 산악이었다. 中岳인 부악(공산)은 押督國을 대표하는 산이었다. 北岳인 태백산은 신라가 죽령을 넘어 한강유역으로 진출해 고구려의 舊土를 점유한 뒤 새로 편입된 세력과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南岳인 지리산은 가야(김해의 本加耶)를 대표하는 산으로 중시했다. 西岳인 계룡산은 백제를 대표하는 산으로 인식되었다.²⁰⁾ 신라의 오악은 각각 해당 지역 정치세력의 聖所였던 곳이었다. 토함산은 석씨세력, 부악은 압독국, 태백산은 고구려, 지리산은 가야, 계룡산은 백제와 관련된 산악이었다. 이런 점에서 오악은 통일 신라시대 국가 수호와 지방통치의 관념에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제사의 주체자는 대사인 삼산과 오악은 왕이 친제했으며,²¹⁾ 『삼국사기』직판지(중)의 내성관부의 하나인 嶽典서 담당했던 듯하다. 그 외에는 州나 군현의 지방관이 왕의 대리자로 제사했을 것이다.²²⁾ 제사의 시기나 횡수 등은 제사지에 전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오악과 사진 등은 연중에 별도로 한차례씩 제사지냈다.²³⁾ 신라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나, 고려·조선의 경우 춘추로 제사를 받들었다.²⁴⁾ 이로부터 신라의 오악제사는 연중 2차례 정례적으로 지냈던 듯하다.

제사의 대상은 산악 자체가 아니라, 각각에 常住하는 山神이었다.²⁵⁾ 토함산은 석탈해가 동악산신(동악대왕),²⁶⁾ 중악에는 中岳神(公山大王),²⁷⁾

20) 이기백, 1974, 앞의 책, 195~204쪽.

21) 북악인 태백산에 왕이 親祀望祭했다(『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5년 10월 ;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2, 기림이사금 3년 3월).

22) 채미하, 앞의 책, 2008, 318~321쪽.

23) 『통전』예6, 연혁6, 길례5, 산천, “大唐武德貞觀之制 五嶽四鎮四海四瀆 年別一祭 各以五郊迎氣日祭之”.

24) 『동국이상국집』권38, 경주동서양악제문 ;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태백산 ; 『신증동국여지승람』권17, 공주목, 사묘, 계룡산사.

25) 이기백, 앞의 책, 1974, 207쪽 ; 채미하, 앞의 책, 2008, 312쪽.

26) 『삼국유사』권1, 기이1, 제사탈해왕 ; 『삼국유사』권1, 왕력1, 제사탈해이질금.

27) 『삼국유사』권4, 의해5, 심지계조 ; 『동국이상국집』권38, 제공산대왕문.

지리산에는 智異山天王(聖母)²⁸⁾이 있었다. 五岳神君, 三山·五岳神²⁹⁾ 등의 표현에서도 산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오악에는 산신을 모신 神祠가 있었다. 토함산에는 탈해의 뼈로 塑像을 만들어 안치한 東岳神祠가 있었으며,³⁰⁾ 조선시대에는 昔脫解祠라고 했다.³¹⁾ 지리산은 天王峰에 ‘聖母廟’,³²⁾ 태백산은 정상에 太白山祠(太伯天王堂),³³⁾ 계룡산도 鷄龍山祠가 있었다.³⁴⁾ 그 외에도 경주의 仙桃山은 ‘神母神祠’,³⁵⁾ 月出山神祠³⁶⁾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³⁷⁾ 따라서 부악(공산)에도 中岳神을 모신 신사가 있었을 법하다.

- B) 公嶺積雪 : 천길 公山은 험준한 봉우리가 겹겹이라, 하늘에 닿게 쌓인 눈에 이슬 기운도 맑구려. 神祠의 신령함이 응당 있음을 알기에, 해마다 三白[정월에 내리는 눈]의 상서로 풍년을 이루리.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대구도호부, 제영, 十詠)

(B)는 徐居正(1420~1488)의 大丘十詠 중 9번째인 ‘公嶺積雪’이다. 공령은 공산일 것이다. 공산 ‘신사’의 신령함이 있어, 해마다 눈이 내려 풍년을 이룬다는 구절에서, 중악신사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경상도지리지』

28) 『제왕운기』권하, 본조군왕세계연대 ; 『동문선』권68, 영봉산용암사중창기 ; 『점필재집』권2, 유두류록.
29) 『삼국유사』권5, 감통7, 선도산성모수회불사 ; 『삼국유사』권2, 기이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30) 『삼국유사』권1, 왕력1, 제사탈해이사금.
31) 『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경주부, 사묘.
32) 『점필재집』권2, 유두류록 ; 『신증동국여지승람』권39, 남원도호부, 사묘.
33)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삼척도호부, 사묘, 태백산사.
34) 『신증동국여지승람』권17, 공주목, 사묘.
35) 『삼국유사』권5, 감통7, 선도산성모수회불사.
36) 『신증동국여지승람』권35, 영암군, 사묘.
37) 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앞의 보고서, 1996.

에는 보다 분명하게 “守令行祭所는 해안현의 북쪽 11리에 있는데, ‘公山 密臺天王之神’이다.”고 하였다.³⁸⁾ 신사는 이를 지칭한 듯하며, 공산신은 ‘공산밀대천왕지신’이었다. 비록 조선시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중악신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있을 듯하다.

2. 신라의 中岳, 父岳(公山)의 위상

『삼국사기』제사지에는 中岳을 ‘父岳 一云 公山’이라 했다. 그 외에 公岳山(公岳), 八公山, 公嶺 등으로도 불렸다. ‘中岳’은 오악이 성립되어 中祀에 편제되면서 붙여졌다. ‘父岳’은 제사지 편찬 당시의 공식명칭인 듯하다. ‘公岳山’은 「서운사료오화상진원탑비」(이하 「순지비」)에 등장한다.³⁹⁾ ‘公嶺’은 ‘公嶺積雪’⁴⁰⁾에서 공산과 병용하였다. ‘팔공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공산을 ‘或稱 八公山’⁴¹⁾이는데서 나타난다. ‘公山’에 ‘八’이 덧붙여진 것이다.⁴²⁾ 金宗直(1431~1492)의 「遊頭流錄」(1472)에서 ‘八公’⁴³⁾이 언급되어 시기는 더 소급될 수 있다.

‘부악’이나 ‘공산’ 등의 명칭은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었겠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중악은 국토의 중앙, 공산은 왕을 보좌하는 최고위의 대신인 삼공,⁴⁴⁾ 부악은 국왕에 비견되는 산악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역측된

38) 『경상도지리지』해안현, 수령행제소.

39) 한국역사연구회, 「서운사료오화상진원탑비」 『역주 나말려초금석문』상, 해안, 1996, 42쪽 ; 『조당집』권20, 오관산서운사화상.

40) 『신증동국여지승람』권26, 대구도호부, 제영.

41) 『신증동국여지승람』권26, 대구도호부, 산천.

42) 문경현, 앞의 책, 1987, 31~32쪽 ; 한동수, 「팔공산 동록의 지리환경과 관봉 석조여래좌상 및 선본사의 입지특성」 『팔공산 선본사』, 2013, 129쪽.

43) 『점필재집』권2, 유두류록.

44) 『예기』왕제, “天子祭天下名山大川 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 諸侯祭名山大川之在其地者”.

다.⁴⁵⁾ 부악은 母山⁴⁶⁾과 상대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남악(지리산 성모), 선도산(聖母), 가야산(正見母主), 운제산(聖母) 등은 여성성을, 동악(昔脫解)은 남성성을 지녔다. 부악은 ‘아버지 산악’이라는 의미이므로 남성성을 지녔던 듯하다.

『삼국사기』제사지에서 오악은 사해, 사독과 달리 국토 사방에 ‘中’이라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어, 四岳과 함께 중악의 설정이 필요하다.

- C) 가을 윤 9월 26일에 [왕이] 獐山城에 거둥하였다. 西原京에 성을 축조하였다. 왕이 達句伐로 郡邑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移都) 이루지 못하였다.(『삼국사기』권8, 신문왕 9년)

신문왕은 689년(신문왕 9)에 達句伐 천도를 단행코자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 시도는 단순히 논의에 그친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진되다가 반대에 부딪쳐 그만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천도는 쉬운 일이 아니며,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신문왕의 달구벌 천도는 사전 준비가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천도에 대한 논의가 있기 직전 왕이 獐山城⁴⁷⁾에 거둥하고 있다. 이는 천도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다. 장산성은 제사지에서 父岳의 관할지인 압독군이었다.

문무왕을 이어 즉위한 신문왕은 685년(신문왕 5)에 신라 지방통치의 근간이 된 9주 5소경 제도를 완비하였다. 왕도가 위치한 경주는 통일된 국토에서 지나치게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달구벌로 천도를 계획하였던 듯하다. 그렇다면 천도와 관련된 일련

45) 『삼국유사』권2, 기이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46) 『최문창후전집』, 당대천복사법장화상전.

47) 獐山城은 원래 押梁小國으로 신라가 병합해 郡으로 삼았으며, 642년(선덕왕 11)에 州를 설치하였다. 이후 656년(태종 무열왕 3) 金仁問이 軍主로 임명되어 장산성을 축조하였다. 신문왕이 거둥한 장산성은 이 곳이었던 듯하다.

의 과정에서 달구벌(압독군)이 국토의 중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압독군을 굽어보는 진산인 부악을 중악으로 확정했다고 여겨진다. 달구벌 천도를 전후한 시기가 중악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⁴⁸⁾ 680년(調露 2년, 문무왕 20)에 탈해의 소상을 동악신사에 안치한 것⁴⁹⁾도 참고된다.

공산의 역할과 위상을 역사적인 변천과정 속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악과 중악신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는지 확인해 본다.

- D)-① 釋心地는 신라 제41대 헌덕왕(809~826) 金씨의 아들이다. ... 15세에 출가하여 佛道를 부지런히 닦았다. 中岳[지금의 公山]이다에 머물렀는데 마침 俗離山의 永深公이 眞表律師의 佛骨簡子를 전해 받아서 果證法會를 연다는 말을 듣고 결심하고 찾아 갔다. ... 심지가 간자를 머리에 이고 산으로 돌아오니 岳神(中岳神)이 두 仙子를 거느리고 나와 맞이하여 산 정상(山椒)으로 갔다. 神은 심지를 인도하여 바위 위에 앉히고 그들은 바위 아래에 엎드려 삼가 正戒를 받았다.(岳神率二仙子 迎至山椒 引地坐於巔上 歸伏巔下 謹受正戒) 심지가 이르기를 “지금 장차 擇地하여 신성한 간자를 봉안하려 하는데 우리 무리(吾輩)가 정할 일이 아니니 청컨대 三君과 더불어 높은 곳으로 올라 간자를 던져 자리를 점쳐봅시다”고 하고, 神들과 함께 산정(峰嶺)에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지니 간자가 곧 바람에 날려 날아갔다. 이때 신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時神作歌) “막혔던 바위가 멀리 물러나니 숲돌인양 평평해지고 낙엽이 날아 흩어지니 앞이 밝아지기도다. 불골간자 찾아내어 정결한 곳에 맞아 정성을 다하리라.”고 하였다. 노래 부르기를 마치고 숲 속 샘에서 간자를 찾아 그 자리에 당을 짓고 이를 봉안하였다. 지금의 桐華寺 籤堂 북쪽의 小井이 이것이다. ... 찬한다. “궁궐에서 자라 일찍이 속망을 벗었고 근검총혜를 하늘이 주

48) 이기백, 앞의 책, 1974, 205쪽.

49) 『삼국유사』권1, 기이1, 제사탈해왕.

셨도다. 뜰 가득히 쌓인 눈에서 신이한 간자를 얻어 동화사 최 상봉(桐華 最上峰)에 가져다 놓았도다.”(『삼국유사』권4, 의해5, 「십지계조」)

- D)-② 弱冠(문성왕 13, 851) … 마침내 양친에 고하여 장차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자 하니, 그 뜻을 꺾을 수 없어서 허락하였다. 곧 五冠山에 들어가 출가하고, 이어 俗離山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 이어 公岳山에 갔다가 문득 神人을 만났는데, 절에 머물러 줄 것을 청하였다. 절 모습이 마치 兜率天과 같았는데, 인연에 따라 설법하니 잠깐 사이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만일 지극하고 행실이 원만한 이가 아니면 그 누가 이럴 수 있으랴. 대중 12년(858년, 현안왕 2) 서원을 발하여 중국에 가기를 원하여, 사신을 따라 바다를 건넜다.(「서운사료오화상진원탑비」)⁵⁰⁾

『삼국사기』제사지 외에 중악 관련 사료는 『삼국유사』 「십지계조」와 「순지비」인데, 둘 모두 불교와 전통적인 산악신앙이 마찰 없이 습합되는 모습을 전해준다.

우선, (D)-①은 心地가 832년(흥덕왕 7) 경 동화사(籤堂)를 창건할 때의 상황이다. 심지가 俗離山에서 眞表의 簡子를 모셔오자 중악신은 두 선자를 거느리고 맞이해 政戒를 받았다. 그리고 심지의 부탁으로 함께 공산 정상에 올라 간자를 봉안할 곳을 점치기 위해 간자를 던지고 노래를 불렀다. 심지는 중악신의 도움으로 간자가 떨어진 곳에 동화사(참당)를 건립하고 간자를 봉안할 수 있었다. 중악신과 두 仙子가 심지로부터 政戒를 받은 것을 보면, 중악신이 불교에 흡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⁵¹⁾ 그렇지만, 간자를 모실 곳을 擇地하는 과정은 심지와 중악신이 함께하고 있어, 양자는 종속적이 아니라 협력·공존하는 관계로 보인다. 또, 심지가 간자를 모실 곳을 택할 때 “우리의 무리들이 정할 수 없으므로 함께 점쳐보자”고

50)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996, 42쪽.

51) 팔공산의 山祭가 통일신라기에 불교에 흡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춘실, 앞의 논문, 2013, 147쪽).

중약신에게 요청하고, 중약신이 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간자를 던진 후에도 중약신이 노래를 불러 봉안 장소를 택할 수 있었다. 택지의 주도적인 역할은 오히려 중약신이 아닌가 한다. 이는 중약에 간자를 봉안할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약신의 허락 혹은 협조가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중약신이 노래를 부른 것도 택지에 필요한 의례 행위가 아닌가 싶다.

了悟선사 順之(832~896)는 850년대 후반에 중약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⁵²⁾ 「순지비」에 표현된 神人은 중약신으로 여겨진다. 중약신은 순지에게 중약의 어느 절에 머물도록 청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兜率天과 비슷했다. 선승의 비문이므로 서술 비중이 순지에게 있으나, 순지가 중약에 머물 수 있도록 중약신이 협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신라시대의 중약신은 불교와 밀접한 善神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약신은 두 선자를 거느리고 심지의 동화사(첨당)의 창건을 도와주었다. 또 순지가 공산의 사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중약신이 불교와 공존하면서, 중사의 대상으로서 높은 위상을 지녔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국가의 중심은 경주에서 개경으로 옮겨지게 되며, 신라의 삼산과 오악도 의미가 감소했을 것이다. 공산도 ‘中祀’가 폐지되어,⁵³⁾ 국토의 중앙인 중약으로서의 위상은 상실했던 듯하다. 그렇다고 공산에 대한 제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명산으로 雜祀에 편제되었을 것이다.⁵⁴⁾ 그 구체적인 모습은 李奎報(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① 무릇 名山에는 모두 常祀가 있으니, 어찌 구할 것이 있는 연후

52) 정동락, 「요오 순지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신라사학보』14, 2008, 132~134쪽.

53) 『대동지지』경상도, 경산, 단유, “父岳 今八公山 新羅稱父岳 以敬中岳載中祀 係押督郡 高麗廢之”.

54) 『고려사』권63, 지17, 예5, 길례소사, 잡사.

에야 비로소 섬기겠습니까. ... 내가 듣기로 公山은 四方의 승앙을 받아 국가의 血食을 받은 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神에게 이미 영험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 일이 있으면 비는 것은 禮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 역시 국가의 제사를 받은 지 오래이니, 창졸간에 변란이 있는데 어찌 차마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작은 공물이나마 마련하여 급히 信使를 보냅니다. 나야 불초하니 설령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야 저버릴 수 없으니, 끝내 버리겠습니까.(「祭公山大王文」)

E)-② 神은 빼어난 신령이 뭉쳐서 여러 산의 호위를 받고 구름을 타고 기운을 부리시니, 上帝가 계시는 곳에도 朝眞하리라 여겨집니다. 某 등이 오랫동안 兵符를 쥐고도 전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모름지기 대왕의 神力을 빌어야만 두 지역의 賊魁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蘭筋[말의 힘줄]을 사당(藻宇)에 올립니다. 이름은 비록 천한 가축이지만 정기는 列星에 응한 것이니, 우러러 바라건대 冲靈은 기꺼이 받아들여시고, 戰卒을 지휘하여 다시 떨쳐 일어날 용맹을 솟구치게 하고, 元兇에게 재갈을 물려 강포한 힘을 능히 제어하도록 해 주소서.(「獻馬公山大王文」)

E)-③ 금월 모일에 적괴들이 사로잡혀 아군에게 목을 바쳤습니다. ... “너희들이 적을 격멸한 공을 나에게 돌리려 하느냐. 이것은 공산대왕이 국가를 위해 皇天上帝에게 辨告하였으므로, 관군에게 손을 빌려 주시어 이렇게 된 것이다. ... ”라고 하고, 끝내 손을 저어 물리치면서, “너희들이 먼저 牲幣와 黍稷의 奠으로 써, 樂府와 軍容을 베풀기를 모두 오늘 배열한 것과 똑같이 하여, 우리 대왕을 즐겁게 해 드리고 나서 나를 즐겁게 해 준다면 나 역시 흔쾌하게 너희들의 위로의 발길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寮屬들이 머뭇거리며 물러나서, 먼저 3일 동안 재계하고 제사에 대한 의식을 갖추어 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심복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대왕의 神靈에 공경히 제사하오니, 대왕은 차마 성의를 사양하지 말고 흠향해 주십시오.(「公山大王謝祭文」)

E)-④ 아, 국가의 불행으로 역적이 일어났으니, 국가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神의 수치가기도 합니다. 수치일 뿐 아니라 신의 불행도 역시 지극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우리 신의 威靈에 의지할 만하다고 여겨 大王의 이름으로 숭앙하고 春秋에 제사를 만들었으니, 기대하는 바는 鎮護國家하여 악을 없애고 복리를 일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 神이 만일 靈이 있다면 당연히 저지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아, 국가에서 평소 신을 섬겼던 공로와 대왕이 국가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 만일 하루아침에 邑과 民이 멸망하고 祠宇가 황폐하게 되면, 대왕은 혼자서 어디에 의지하며 누구를 믿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대왕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재물을 바치며 허비하겠습니까. … 지금 대왕을 위한 제책으로서의 우리 관군이 적의 우두머리는 사로잡아 죽이고, 나머지는 용서하여 농사에 돌려보내어 예전처럼 煙火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왕의 血食도 길이길이 끊기지 않을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神은 헤랴하시어나의 기대를 따르소서.(「慶州東西兩岳祭文」)⁵⁵⁾

이규보는 1202년(신종 5) 12월 경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라부흥운동(東京叛徒)을 진압하기 위한 征東軍으로 참여하였다. 이 때 지은 33건의 祭文이 『동국이상국집』권38에 수록되어 있다. 동정군은 개경 奉恩寺의 太祖眞殿 등 사원을 비롯해 용왕, 산신, 海神, 天皇, 太一 등 여러 신격에게 제사를 지냈다. 반란군 진압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민심수습 차원에서 거행했다.⁵⁶⁾ 특히, 공산에서는 난이 진행 중일 때 「祭公山大王文」(1202년 12월)과 「獻馬公山大王文」(1203년 3월), 진압한 후에는 「公山大王謝祭文」(1204년 2월)을 지어 제를 올렸다.

(E)-①은 공산대왕이 사망의 승앙을 받고 국가의 제사를 누린지 오래

55) 『동국이상국집』권38.

56) 김호동, 『고려 무신정권시대 문인지식층의 현실대응』, 경인문화사, 2003, 228~235쪽.

되었으니, 국가가 당한 변란을 정벌토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②는 공산대왕에게 蘭筋(말의 힘줄)을 바치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들의 힘을 제어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③에서는 적과들의 진압은 공산대왕에 의지한 바이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공산대왕의 위격을 皇天上帝가 계시는 곳에 朝眞하거나, 국가를 위해 상제에게 변고하는 존재로 파악됐다.(②·③) 한편, ④는 경주의 東·西兩岳을 대왕으로 숭앙하고 제사를 지낸 것은 鎮護國家와 興利除惡에 있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公山神에게 국가를 진호하고 반군을 진압하는 역할을 기대했고, 황천상제에게 조진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변고하는 神格을 지닌 존재로 여겼다.

한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공산의 위상은 지속되었다.⁵⁷⁾

- F)-① 명산은 公山으로 현 북쪽에 있다. … 守令行祭所는 公山密臺 天王之神인데 현 북쪽 11리 거리에 있다.(『경상도지리지』해안현)
- F)-② 公山은 解顔縣의 북쪽 11리에 있다. 신라 때에 부악이라 칭하고, 중악에 비겨 중사로 삼았다. 지금은 守令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 경주부, 대구군)
- F)-③ 공산은 八公山이라고도 칭하는데, 해안현의 북쪽 17리에 있다. 신라 때에 부악이라 칭하고 중악에 비겨 중사를 지냈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26, 대구도호부, 산천)
- F)-④ 팔공산은 해안현 북쪽 17리에 있다. 신라 때에 부악이라 칭하고 중악에 비겨 중사를 지냈다. … 祈雨祭壇이 있고, 고려 태조의 고적이 있다.(『여지도서』권하, 경상도, 대구, 산천)

(F)-①에서 해안현에는 명산인 공산에 수령행제소가 있었으며, 제사

57) 공산은 『경국대전』예전 제례조에 ‘소사’로 수록된 명산대천에 포함되었을 듯하다.

대상은 ‘공산밀대천왕지신’이었다.⁵⁸⁾ ②에서도 공산에서 수령이 行祭했다고 전한다.⁵⁹⁾ ④에서는 공산에 기우제단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공산은 명산으로 수령이 행제했고, 공산신은 공산밀대천왕지신이였다.

Ⅲ. 중악 제사지로서의 ‘팔공산 동봉 유적’

1. 신라의 오악 제사지

신라의 산악제사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일부 이뤄졌는데, ‘영암 월출산유적’, ‘기장 달음산유적’, ‘하남 이성산성’, ‘대전 보문산성’, ‘거창 거열산성’ 등이다. 주로 산 정상이나 산성과 인접한 곳에서 토제나 철제의 말을 비롯해 각종 토기 및 자기편과 함께 제사 관련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⁶⁰⁾ 산성을 제외한 ‘영암 월출산 유적’과 ‘기장 달음산 유적’이 산악제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이다. 특히, 『삼국사기』제사지에 小祀로 등재된 月奈岳인 월출산 天皇峰의 祭天壇에 대한 발굴조사는 주목된다. 이 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제 향로 뚜껑과 마형 토제품 및 철제품, 고려시대의 녹청자 접시와 청자 탁잔대, 조선시대의 백자 접시와 기와 등 각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토제와 철제 말은 산악 제사유적의 특징을

58) 『경상도지리지』에 수록된 경상도의 명산 11개소 중에서 ‘空山(在義興)’은 해안현의 ‘公山’일 것이다.

59) 조선시대 명산대천의 제장은 行祭所인 國行과 守令行, 주민에 의해 수행되는 곳 등 3가지의 위상으로 나뉘고, 국행의 경우 중사와 소사로 구분된다고 한다 (허홍식, 앞의 논문, 2003, 204쪽).

60) 복천박물관, 앞의 특별전 도록, 2006, 58~63쪽 및 동진숙, 앞의 논문, 2006, 156쪽.

잘 보여준다.⁶¹⁾ 小祀를 지낸 月出神祠가 천황봉 정상부에 입지했던 것이다.

한편, 오악 제사지에 대해서는 화엄십찰과 오악의 관련성을 언급한 성과⁶²⁾를 토대로, 불교사찰과 관련하여 살핀 연구가 있다.⁶³⁾ 동악 토함산은 山頂에 昔脫解王의 동악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金大城이 석굴암을 창건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산악숭배 신앙을 불교적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⁶⁴⁾ 하지만, 토함산 산정에 있었던 동악신사(昔脫解祠)는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으며,⁶⁵⁾ 제사유적이 확인된다.⁶⁶⁾ 실제, 토함산 정상부의 현장조사에서 벽돌(塼)을 비롯해 기와, 토기, 청자, 분청자편 등이 채집되었다. 특히, 암키와에는 叩板타날된 명문이 반복되어 있는데, ‘□□九□□燈院造□□’ 등 10여자의 글자가 읽힌다. 토함산 정상부에는 전돌을 깔고 기와를 얹은 건물이 통일신라에서 조선전기까지 지속적으로 개·보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북악 태백산은 『송고승전』 의상전의 浮石寺 창건설화를⁶⁷⁾ 산천제사의 제장이 불교 사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마찰이며, 부석사 창건을 계기로 불교에 흡수된 것은 아니고 고려시대 이후 삼척의 태백산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한다.⁶⁸⁾ 한데, 『고려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는 삼척의 태백산을 ‘신라의 북악’이라 하였다.⁶⁹⁾ 태백산 정상에는 太伯天王堂

61) 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앞의 보고서, 1996.

62) 이기백, 앞의 책, 1974.

63) 중악을 비롯한 오악의 제사지는 김춘실, 앞의 논문, 2013, 146~153쪽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64) 김춘실은 토함산의 동악신에 대한 제사가 석굴암 창건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김춘실, 앞의 논문, 2013, 150쪽).

65) 『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경주부, 사묘.

66) 최광식, 앞의 책, 1994, 303~309쪽.

67) 『송고승전』권4, 신라국의상전.

68) 김춘실, 앞의 논문, 2013, 151쪽.

69) 『고려사』권58, 지12, 지리3, 삼척현 ;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삼척도호부, 산

이 있어 강원도 및 경상도 여러 군의 人民이 춘추로 제사를 지냈다.⁷⁰⁾ 『삼국사기』에 왕이 牛頭州에서 태백산에 망제한 것으로 보아, 북악의 제장은 삼척의 태백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악 계룡산은 원래 백제의 東岳으로 국가적 제사처였다. 당나라 張楚金の 『翰苑』 백제전에는 鷄山, 그곳에 인용된 『括地志』에는 鷄藍山이 등장하는데⁷¹⁾ 곧 계룡산이다. 계룡산은 백제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중국에 알려졌고, 백제인들도 그렇게 인식했다.⁷²⁾ 신라와 고려시대에 중사, 조선 시대에는 명산으로 소사에 편제되었다.⁷³⁾ ‘鷄龍山祠’는 계룡산 남쪽(40리)에 있으며, 매년 춘추로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했다.⁷⁴⁾ 조선초 계룡산신은 護國伯에 봉해졌고,⁷⁵⁾ 사묘의 位版은 ‘鷄龍山之神’이라 썼다.⁷⁶⁾ 계룡산신에 대한 제사는 현재까지 新元寺 내의 中岳壇에서 주관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⁷⁷⁾ 신라 서악의 제사처가 계룡산사(중악단)와 동일 장소인지는 알 수 없다. 여타 오악을 참고하면 천황봉 정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악 지리산은 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중사’를 지냈다.⁷⁸⁾ 지리산에는 大天王祠가 있다거나,⁷⁹⁾ ‘智異山神祠’는 “(남원)부 남쪽 64리의 小兒里

친, 태백산.

70)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 『세조실록』권3, 세조 2년(1456) 3월 정유 ;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삼척도호부, 사묘, 태백산사.

71) 『한원』번이부 백제.

72) 이기백, 앞의 책, 1974, 204쪽.

73) 『세종실록』오례, 吉禮序例, 辨祀 ; 『세종실록』권76, 세종 19년(1437) 3월 계묘 ; 『신증동국여지승람』권17, 공주목, 사묘 ; 『대동지지』충청도, 공주, 壇壝.

74) 『신증동국여지승람』권17, 공주목, 사묘.

75) 『태조실록』권3, 태조 2년(1393) 1월 정묘.

76) 『세종실록』권76, 세종 19년(1437) 3월 계묘.

77) 이필영, 「계룡산 중악단의 역사」, 『계룡산 산신제 복원 조사보고서』, 1997, 108 ~ 112쪽 ; 윤용혁, 「역사 속의 계룡산」, 『계룡산』, 국립공주박물관 계룡특별전 도록, 2007.

78) 『고려사』권57, 지리지2, 남원부 ; 『세종실록』오례, 吉禮序例, 辨祀.

79)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 진주목, 명산, 지리산.

”,⁸⁰⁾ 진주목의 守令行祭所로 “智異山大大天王天淨神菩薩로 州 서쪽 117 리 149보”⁸¹⁾에 있었다. 조선 초 지리산신은 護國伯에 봉해졌고,⁸²⁾ 사묘의 위관은 ‘智異山之神’이라고 썼으며,⁸³⁾ 매년 춘추로 향축을 내려 관찰사가 제사지냈다.⁸⁴⁾ 이와 달리 “聖母祠는 둘인데, 하나는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있고, 하나는 (함양군 남쪽 嚴川리에 있다.”⁸⁵⁾ “성모사는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있다”⁸⁶⁾고도 한다. 천왕봉 아래의 香積寺는 聖母廟의 香火를 위해 창건했다.⁸⁷⁾ 따라서 고려·조선시대와 신라시대의 남악 제사처는 달랐던 듯하다. 신라시대의 제사처인 성모묘는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김종직의 『遊頭流錄』(1472)에서 그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G) 哺時(申時)에 天王峰에 오르니 … 解空과 法宗이 먼저 聖母廟에 들어가 小佛을 받들고 날이 맑게 해달라고 외치며 희롱하였다. 나는 처음에 이를 장난으로 여겼는데, 물어보니 말하기를, “세속에 서 이렇게 하면 하늘이 갠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손발을 씻고 冠帶를 정제한 다음 石磴을 잡고 올라가 사당에 들어가서 酒果를 올리고 聖母에게 고하기를 … 제사를 마치고는 함께 神位 앞에 앉아서 술을 두어 잔씩 나누고 파하였다. 祠屋은 다만 3칸인데, 嚴川리의 사람이 고쳐 지은 것이다. 또한 板屋으로 못을 막아 놓아서 매우 견고하였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었다. 두 승려의 회화가 그 벽에 그려져 있고, 소위 聖母는 곧 石像으로 眉目과 鬢鬢(쪽머리)는 모두 粉黛를 발라놓았다. 목

80) 『신증동국여지승람』권39, 남원도호부, 사묘.

81) 『경상도지리지』진주목.

82) 『태조실록』권3, 태조 2년(1393) 1월 정묘.

83) 『세종실록』권76, 세종 19년(1437) 3월 계묘.

84) 『세종실록지리지』전라도.

85) 『신증동국여지승람』권31, 함양군, 사묘.

86) 『신증동국여지승람』권30, 진주목, 사묘.

87) 『신증동국여지승람』권30, 진주목, 불우.

에는 缺畫이 있어 그 까닭을 물어보니 “太祖가 引月驛에서 倭寇와 싸워 승첩을 거둔 해에 왜구가 이 봉우리에 올라와 그 곳을 베고 갔으므로, 후인이 풀을 발라서 다시 붙여놓은 것이다.”고 하였다. 그 동편으로 움푹 꺼진 石壘에는 해공 등이 희롱하던 小佛이 있다. 이를 國師라 부르며 世俗에서는 성모의 淫夫라고 전해온다. 또 묻기를, “성모는 세속에서 무슨 神이라 하는가?”라고 하니, 답하기를, “釋迦의 어머니인 摩耶夫人입니다.”고 하였다. 아, 이런 일이 있는가. 西竺과 우리 동방은 千百世界로 막혀 있는데, 迦維國의 부인이 어떻게 이 땅의 神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李承休의 『帝王韻記』를 읽어보니, ‘성모가 道詵國師에게 명하였다’(聖母命詵師)는 구절의 註에 이르기를, “지금 지리산의 天王이니, 바로 高麗太祖의 妣인 威肅王后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고려 사람들이 풍습에 仙桃聖母의 설을 듣고 자기 임금의 계통을 신격화하기 위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 聖母廟에 들어가서 다시 술잔을 올리고 사례하기를, “오늘은 천지가 맑게 개고 산천이 환하게 트였으니, 이는 실로 신의 도움을 힘입은 것이라, 참으로 깊이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다. … 그 중에 유독 동쪽의 八公山과 서쪽의 無等山만이 여러 산들보다 약간 높게 보인다.(『遊頭流錄』⁸⁸⁾)

김종직 일행은 1472년 8월 14일과 15일에 천왕봉에 올랐다. 당시 풍습에는 성모묘 내의 小佛에게 날씨가 맑기를 기원하였다. 점필재는 성모에게 제사를 지냈고, 날씨가 맑아지자 감사의 제를 올렸다. 성모는 날씨가 맑게 하거나, 기우의 대상이기도 했다.⁸⁹⁾ 고려시대의 이규보는 지리산대왕에게 東征軍 지휘관의 치병을 기원했다.⁹⁰⁾ 특히, 김종직은 성모묘의 구조를 자세히 기록했다. 사당은 板屋으로 3칸인데, 바람을 막기 위해 못을 박아 견고하게 고정시켰다. 내부의 벽에는 두 승려의 탕화가 있었다. 성모

88) 『점필재집』권2, 유두류록.

89) 『점필재집』시집, 권7, 喜雨 ; 明日祭聖母廟 有雨 ; 권10, 禱雨聖母廟 歸途遇雨.

90) 『동국이상국집』권38, 지리산대왕전원문.

는 석상으로 얼굴과 머리에 粉黛로 칠해놓았고 목 부분에는 금이 나 있었다. 성모상의 동편의 돌무더기 위에는 소불이 1구 놓여 있었는데, 國師로 성모의 淫夫라고 전해왔다. 당시 사람들은 성모를 마야부인 혹은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威肅王后라고 인식했다. 이 모습은 15세기 중반의 민간신앙화 한 성모묘로, 신라시대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중악 공산의 경우 『고려사』나 조선시대의 지리서에서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공산이 고려시대에 이미 중요성이 사라진 결과로, 팔공산의 산신제는 통일신라기에 불교에 흡수되었으며, 그 흔적이 ‘관봉 석조여래좌상’(일명 갓바위 부처)이라고 한다. 즉, 팔공산의 중악 제사지는 현재 관봉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곳이며, 신라의 중사가 불교의례로 바뀐 시점은 ‘관봉 석조여래좌상’이 조성된 9세기 전반경이라는 것이다.⁹¹⁾ 이는 중악 제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불교 전래 이후 산천제사가 불교에 흡수되었으며, 관봉 석조여래좌상이 근대까지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는 점에 근거한 추론이다. 하지만, 관봉은 입지적인 면에서 최고봉인 비로봉에서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악의 제사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선시대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지만, 공산에는 ‘공산밀대천왕지신’을 모신 수령행제소가 존재했다.(사료 F) 이는 신라 중악신사의 전통을 계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 오악의 제사처는 도함산을 비롯한 태백산 장군봉, 계룡산 천황봉, 지리산 천왕봉 등 정상부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악신사도 ‘密臺’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산정상부에 입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심지계조」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사료 D-①) 즉, 俗離山으로부터 진표의 簡子를 가지고 돌아온 心地를 중악신이 맞이해서 간 곳은 산정상(山椒)이었다. 그리고 심지를 바위 위에 앉히고, 중악신과 두 선자는 바위 아래에서 정계를 받았다고 한다.

91) 김춘실, 앞의 논문, 2013, 146~148쪽, 153쪽.

심지가 중악신과 함께 간자를 던진 곳도 산정(峰巒)이었다.⁹²⁾ 일연이 지은 讚詩에는 진표의 간자를 얻어 동화사의 最上峰에 모셨다고 하였다.⁹³⁾ 이는 중악신을 모신 신사의 입지가 산정상(巖上)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중악신은 두 仙子를 거느린 산신으로 인식되었다. 중악신사의 내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다. 문제는 중악신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일까라는 점인데, 이는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을 듯하다.

2. ‘팔공산 동봉 유적’ 소개

팔공산은 백두대간의 普賢山(1,124m)에서 서남쪽으로 華山(828m)의 맥을 잇고, 팔공산을 거쳐 架山(902m)으로 연결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에 걸쳐있으며,⁹⁴⁾ 1980년에 경상북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형성된 고리모양의 산지는 이른바 팔공산맥이라고 부른다. 남동쪽은 초례산에서 시작하여 환성산, 관봉, 노적봉, 인봉, 염불봉, 동봉을 거쳐 비로봉에 이른다. 서북쪽으로는 비로봉에서 서봉, 파계봉, 가산으로 연결된다. 팔공산은 주봉인 비로봉(天王峰, 1,193m)을 중심으로 東峰(미타봉, 1,167m)과 西峰(삼성봉, 1,153m)이 양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솟아올라 대구분지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산의 북쪽에는 위천의 상류인 남천과 여러 계류들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한천과 신령천 등이 흐른다. 남쪽으로는 계류들이 남

92) 동봉에서 염불암을 거쳐 동화사 쪽으로 산맥이 연결되어 있어, 간자를 던진 곳은 동봉정상이 아닌가 한다.

93) 김춘실은 심지를 맞아들인 중악신이 관봉 석조여래좌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한다(김춘실, 앞의 논문, 2013, 147쪽).

94) 『신증동국여지승람』권26, 대구도호부, 산천 ; 『여지도서』권하, 경상도, 대구, 산천.

류하여 동화천을 이루어 금호강으로 흘러든다.⁹⁵⁾

팔공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다수의 불교사원이 창건되었다. 남쪽과 서쪽의 대구와 칠곡권에는 동화사를 비롯해 북지장사, 파계사, 부인사, 미리사지와 송림사가 위치한다. 그 외에 비로암과 염불암 등의 암자가 있다. 동쪽의 영천과 경산권에는 은혜사와 거조암, 환성사, 불굴사, 선본사, 원효암, 묘봉암 등이 있다. 북쪽의 군위권에는 삼존석굴 등이 있다.⁹⁶⁾ 흥미로운 점은 팔공산의 비로봉과 서봉, 동봉, 관봉 등에는 다수의 불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봉의 서쪽 능선에는 ‘신무동 삼성암지 마애약사여래입상’, 서봉과 비로봉 사이에는 ‘팔공산 마애여래좌상’, 비로봉과 동봉 사이에는 ‘팔공산 동봉 석조약사여래입상’, 비로봉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린 관봉에는 ‘관봉 석조여래좌상’ 등이 산정상상의 능선부에 조성되어 있다. 특히, ‘팔공산 동봉 석조약사여래입상’은 높이 6m의 거대한 약사여래불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불상은 동봉을 등지고 비로봉 쪽으로 서향해 있는데, 마치 비로봉을 시위하는 양상이다.

현재, 팔공산에는 중약신을 모신 신사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최고봉인 비로봉 정상에는 자연할석으로 쌓은 원형의 제단이 있다. 이른바 ‘제천단(천왕당)’으로, 직경 1.8m×높이 1.4m 정도 규모이다. 약간 아래쪽에는 ‘팔공산 제천단’이란 표석(2004년 7월 건립)도 세워져 있다. 이곳을 신라 중약 제사터로 추정하고, 각종 제천행사를 봉행하고 있다. 실제로 비로봉은 팔공산의 최고봉이며, 천왕봉·帝王峰·將軍峰·上峰 등으로도 불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전하는 제천단은 조성시기를 알 수 없는데, 그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팔공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네이버 지식백과) ; 한동수, 앞의 논문, 2013, 128~130쪽.

96) 이영호, 「대구지역의 고대 불교」 『상주문화연구』13, 2004 ; 김상현, 「통일신라시대 팔공산의 불교신앙」 『팔공산 선본사』, 2013.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비로봉 정상부 주변에는 제사와 관련한 유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⁹⁷⁾

한편, 팔공산 동봉은 비로봉의 동쪽에 입지하면서, 비로봉 보다 약 30m 정도 낮다. 비로봉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산 능선이 약간 아래로 꺼져 평탄지를 이루다가, 다시 동봉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에 ‘동봉 석조약사여래입상’이 서 있다. 능선은 약사여래입상이 있는 곳에서 급격하게 솟아오르며, 경사로를 따라 오르면 동봉에 이른다. 동봉은 정상부가 암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능선을 따라 폭 5m, 길이 50m 정도로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 외에 남-북 양 편으로는 가파른 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비로봉은 정상부가 협소한데 비해, 동봉은 정상부의 암면이 제법 넓은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즉, 정상부가 약 60~70여평 남짓하게 길쭉한 공간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사져있지만 일부편은 편평한 곳도 있다. 따라서 정상부와 그 동편의 공간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규모의 건물은 건립할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암면의 풍화가 심해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부에서는 바위 상면에 흠을 파거나 정리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한데, 동봉 정상부의 갈라진 바위틈과 경사면 주위에서 기와, 토기, 청자 및 분청자편이 다량으로 산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발 1,167m의 정상부와 그 아래로 1,150m 사이에서 상당량의 유물이 확인된다. 특히, 해발 1,160~1,150m 사이의 동봉 남쪽 사면에서 집중적으로 채집된다. 얼핏 이 유물들이 동봉 아래쪽에 있는 석조약사여래입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동봉 정상부 부근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 일반적으로 유물은 토양침식이나 기타 요인으로 수평 또

97) 비로봉 주변에는 군사시설이 입지해 자세한 조사가 어려웠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 보자면 신라의 중약 제사지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는 하향퇴적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기와편은 露頭岩上인 정상부에 어떤 형태로든 건물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정상부의 여건으로 보아 장기간 지속적으로 건물이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지리산 천왕봉이나 영암 월출산 유적 등의 상황을 참고하건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토기나 자기편의 경우는 팔공산의 遊山과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시대를 달리하는 다량의 기와편은 이곳이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유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유물들은 공산의 산악제사, 구체적으로는 신라의 중악제사와 관련된 건물과 제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동봉 정상부에서 채집되는 유물은 크게 기와편, 토기편과 자기편이다. 먼저, 기와편은 암키와와 숫키와, 초가리 등이 확인된다. 문양은 민무늬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외에 선문과 격자문, 어골문, 파문 등 다양하다. 두께는 대략 1.5~2cm 정도이다. 특수기와에 속하는 ‘초가리’는 1/2이 잔존한다. 기존의 기와편을 활용해 중앙에 못 구멍을 뚫다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대체로 통일신라에서 조선전기에 이르러 시기 폭이 넓다.

다음으로 토기는 회청색의 경질토기로, 주로 민무늬이나 일부 격자문과 물결문이 확인된다. 기종은 완형은 없으나 대부분 주병이나 항아리 종류로 추정된다. 특히, ‘향완 대각’으로 보이는 토기편은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듯하다. 시기는 대략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는 청자와 분청자 두 종류이며, 청자보다 분청자가 훨씬 비중이 높다. 기종은 대체로 잔이나 대접인데, 소형 잔의 비중이 높다. 청자 잔의 경우 내저원각에 받침눈이 없으며, 굽은 죽절굽이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며 색상은 회백색, 기면에는 가는 빙열이 관찰된다. 분청자도 대부분 소형의 잔이나 대접 종류로, 내저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있다.

굽은 직립굽과 곡면굽이다. 문양은 소문과 귀얄 및 선문이 많고, 일부 화문(국화문)도 확인된다. 이들 토기와 자기들은 팔공산의 중악제사에 사용된 제의용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팔공산 동봉 유적’은 기와, 토기와 자기편 등이 다량으로 채집되며, 시기는 통일신라에서 조선전기까지에 해당한다. 동봉 정상부의 암상에는 기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기 폭이 넓은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건물의 수축이 있었을 것이다. 토기와 자기의 기종은 주병, 소형의 잔과 대접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의와 관련된 용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로 보아 팔공산 동봉 정상에서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 ‘팔공산 동봉 유적’은 산정의 바위 위에 입지한 巖上유적이었다. 정상부에 건립된 기와 건물은 제의를 위한 신사였으며, 주병과 잔 등은 祭器로 사용되었던 듯이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동봉 유적은 신라시대 중악 제사를 지내던 中岳神祠가 위치했던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심지계조」조에서 심지와 중악신이 만났던 무대가 산정상의 巖上일 가능성과도 부합한다. 산정에 입지한 점은 토함산의 동악신사와 지리산의 聖母廟, 월출산 천황봉의 월출산신사 등과 공통성을 지닌다. 아울러, 신라의 중악신사는 고려시대에는 ‘공산대왕’을 치제하고, 조선시대에는 ‘공산밀대천왕지신’을 모신 ‘수령행제소’로 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⁹⁸⁾

98) ‘팔공산 동봉유적’에 대한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분포범위를 확정하고, 유물의 도면을 작성하여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세부적인 논증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IV. 맺음말

『삼국사기』제사지에는 三山·五岳 이하 名山大川의 祭場 50곳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산악이 35개소 이상으로 전체의 70%에 이른다. 산악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산악 중에서 삼산과 오악의 제사가 가장 중시되었다. 삼산이 舊신라와 관련된 것이라면, 오악은 통일신라와 밀접하였다. 이 글은 오악 중에서 中岳인 公山の 제사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사례 연구이다.

팔공산의 동봉(1,167m) 정상부에는 기와편을 비롯해 토기와 자기편 등 다량의 유물이 산포해 있다. 주로 정상부와 그 아래의 해발 1,160~1,150m 사이의 바위틈과 경사면에서 다수의 유물이 확인된다. 이 유물은 대체로 통일신라에서 조선전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 중 토기와 자기는 팔공산을 遊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와는 동봉 유적이 그와는 다른 성격을 지녔음을 추측케 한다. 즉, 기와를 통해 동봉 정상부에는 특별한 용도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와는 종류가 다양하고 시기 폭도 넓어, 건물이 장기간에 걸쳐 수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토기와 자기는 酒瓶, 소형의 잔과 대접 종류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산악제사와 관련된 儀器가 아닌가 한다.

‘팔공산 동봉 유적’은 山頂의 바위 위에 입지한 巖上유적이다. 동봉 정상부의 기와 건물은 祭儀를 위한 神祠, 주병과 잔 등은 祭器였을 듯이다. 동봉 유적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中岳神祠터로 추정된다. 신라의 중앙 제사지는 현재 祭天壇이 있는 비로봉이나 관봉 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관봉이 아니라, 동봉 정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발굴조사가 아니라 지표 채집 유물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 동봉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사지를 추정한 것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문헌 자료가 부족한 신라의 산악제사에 대한 논의의 진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저서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문경현, 『팔공산』, 대구직할시·경상북도, 1987.
 김상현,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1991.
 신종원, 『신라초기 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1996.
 한국역사연구회, 『역주 나말려초금석문』상, 혜안, 1996.
 김두진,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김호동, 『고려 무신정권시대 문인지식층의 현실대응』, 경인문화사, 2003.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복천박물관, 『선사·고대의 제사·풍요와 안녕의 기원-』, 2006.
 허홍식, 『한국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집문당, 2006.
 김재경, 『신라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민족사, 2007.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선본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팔공산 선본사』, 2013.

2. 연구 논문

- 김영수, 「지리산 성모사에 就하여」 『진단학보』11, 1939.
 이기백, 「신라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33, 1972.
 홍순창, 「신라 삼산 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4, 1983.
 문경현,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12, 1991.
 최광식, 「신라와 당의 대사·중사·소사 비교 연구」 『한국사연구』95, 1996.
 김철웅, 「고려시대의 산천제」 『한국중세사연구』11, 2001.
 허홍식, 「조선전기 경상도의 산천단묘와 그 특징」 『민족문화논총』28, 2003.
 이영호, 「대구지역의 고대 불교」 『상주문화연구』13, 2004.
 동진숙, 「고대 제사유구와 유물」 『선사·고대의 제사·풍요와 안녕의 기원-』, 복천 박물관, 2006.
 윤용혁, 「역사 속의 계룡산」 『계룡산』, 국립공주박물관 계획특별전도록, 2007.

- 정동락, 「요오 순지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신라사학보』14, 2008.
- 김아네스, 「고려시대 산신 숭배와 지리산」 『지리산과 명산문화』, 지리산권문화 연구단, 2010.
- 김상현, 「통일신라시대 팔공산의 불교신앙」 『팔공산 선본사』, 2013.
- 김춘실,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의 양식 특징과 조성 배경」 『팔공산 선본사』, 2013.
- 최진구, 「신라 오악과 불교의 산신신앙 연구」 『신라문화』42, 2013.
- 한동수, 「팔공산 동록의 지리환경과 관봉 석조여래좌상 및 선본사의 입지특성」 『팔공산 선본사』, 2013.
- 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신라문화』43, 2014.
- 임평섭, 「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 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 『신라문화』43,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Remains in the East Peak of Palgong Mountain as Shilla's Jungak(中岳)

Jung, Dong-lak

This is a case study that deals with the jesaji in Gongsan(公山), the mountain in the center of Silla among its three mountains and five great mountains(三山五岳). At the east peak(1,167m) of Palgongsan, a large amount of relics including not only roof tiles but earthenware and porcelain pieces are scattered. The relics mostly correspond to from the Unified Silla till early Chosun. And in particular, roof tiles are so diverse and cover many different periods, so it seems that the structures went through repair and roof mending for a long period. And most of the earthenware and porcelain are bottles, small cups, and bowls.

‘Remains in the east peak of Palgongsan’ refer to relics on rock located on the top of the mountain. The tiled-roof structure on the east peak seems to have been the shrine for ancestral rites, and the bottles or cups may have been used as utensils for the rites. Therefore, remains in the east peak may have been the site of jungak sinsa(中岳神祠; the shrine in the central mountain) during Silla. And Silla's jungak jesaji must have been the east peak of Palgongsan.

Since this article develops its discussion based on the relics found from archaeological field research, not from excavation, it has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mains in the east peak exactly. However, it is still significant as it has found the concrete jesaji presumably through field research.

Key Words : Silla, celebrated mountains and rivers(名山大川), Oak(五岳; five mountains), Jungak(中岳; the mountain in the center), Gongsan(公山; the old name of Palgongsan), Jesaji(祭祀址; the site for ancestral rites), remains in the east peak of Palgongsan(八公山東峯 遺蹟)

논문 투고일 : 2014. 7. 23

심사 완료일 : 2014. 8. 5

게재 확정일 : 2014. 8. 11

□ 참고자료 1 : 팔공산의 지리적 환경



〈그림1〉 팔공산 주변 지형현황



〈그림2〉 대동여지도의 팔공산 부분

□ 참고자료 2 : 팔공산 동봉 유적 전경



1. 팔공산 비로봉과 동봉



2. 동봉 원경



3. 동봉 전경



4. 동봉 정상



5. 동봉 정상부1



6. 동봉정상부2



7. 동봉 정상부3



8. 동봉 정상부4



9. 유물출토 상황1



10. 유물출토 상황2



11. 유물출토 상황3



12. 유물출토 상황4

□ 참고자료 3 : 팔공산 동봉 유적 출토유물



1. 각종 기와편(전면)



2. 각종 기와편(후면)



3. 수키와(미구부분)



4. 기와문양(선문)



5. 기와문양(어골문)



6. 기와문양(파문)



7. 특수기와(초가리)



8. 자기편(청자, 분청자) 상면



9. 자기편(청자, 분청자) 후면



10. 청자와 분청자 잔



11. 분청자의 각종 문양



12. 토기편(병, 항아리 등) 외면



13. 토기편(병, 항아리 등) 내면



14. 토기편(병, 항아리 저부)



15. 토기편(병 구연부, 토기 문양)



16. 토기편(항완 대각)

□ 참고자료 4 : 비로봉 제천단과 산정의 불교유적



1. 비로봉 제천단(1,193m)



2. 신무동 삼성암지 마애약사여래입상(950m)



3. 팔공산 마애약사여래좌상(1,130m)



4. 팔공산 동봉 석조약사여래입상(1,110m)